



# GTE

summer 2024 Vol.01

SEMICS  
quarterly magazine  
The Greatest TSP Empire



# The First Exciting

## THE **GREATEST** <sup>EVER</sup> TSP EMPIRE

(주)세믹스가 꿈꾸는 위대한 테스트 제국은  
물리적 영토를 넘어 비전의 영토를 향합니다.

독보적인 기술과 최고의 품질은 기본,  
도전과 혁신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때까지  
(주)세믹스는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세믹스는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세믹스는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믹스의 영광스러운 오늘은 세믹스를 이루는 사람들 즉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설립 초반부터 저는 크게 생각(Think Big)하고 크게 이야기(Talk Big)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미(Fun)있게 일하며 자부심(Pride)을 느끼고 공동의 이익(Profit)을 극대화하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가치들은 세믹스인들의 호응에 힘입어 세믹스의 핵심 문화로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7월 월례회의에서 “권한은 쥐도 쥐도 남는다”, “사람을 크게 키우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믹스의 브랜드 매거진 <GTE>를 창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내 인트라넷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있지만 종이 책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매거진 제작을 계기로 세믹스인들 간의 면대면 접촉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둘째, 각 본부와 지사의 소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발굴하고 공유하는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매 순간 발전하고 있는 세믹스의 역사를 촘촘히 기록하고 저장했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세믹스인들이 원하는 매거진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바람들을 잘 수집하고 반영한다면, <GTE> 매거진은 세믹스의 가치와 철학을 알리는 브랜드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는 GTE(The Greatest TSP Empire)라는 위대한 비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Fun, Pride, Profit이라는 가치를 새기고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위대한 GTE 비전을 완성할 그날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2024년 8월

(주)세믹스

회장 유완식




GTE The Greatest TSP Empire를  
이루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통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 First & Exciting

## 당신의 처음은 어땠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무슨 일을 할 때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상에 대한 관심을 극복해야 하고 두려움과도 직면해야 하니 까요. 그럴 때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었던 처음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세믹스의 브랜드 매거진 <GTE>의 창간과 함께 세믹스의 처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 CONTENTS

## SPECIAL THEME

## SEMICS ZONE

### THEME SURVEY 04

세믹스인들에게 처음<sup>First</sup>은 어떤 의미인가요?

### THEME REPORT 06

2024년 마지막 날을  
후회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면?

### THEME TALK 08

“세믹스는 언제나 Exciting 하게,  
First를 향해 갑니다”

- (주)세믹스 유완식 회장

### THEME PLAYLIST 12

우리 각자의 First를 찾아서

- 영업본부 오진수<sup>Jmsu</sup> & 연구본부 김지수<sup>Chloe</sup>

### IT SEMICS 14

GTE 건설의 부스터,  
Real Group Prover OPERA

### SEMICS 탐구생활 16

2024 세믹스 광 워크샵

### SEMICS CARE 22

단순하게, 즐겁게, 꾸준하게!  
바쁜 당신을 위한 운동 처방전

### GLOBAL SEMICS 24

대만의 실리콘밸리 신주시 & 세믹스 대만지사

### TECH TREND 28

세믹스가 그리는  
혁신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의 길

- 기획본부 박경자<sup>Teresa</sup>

### SEMICS NOW 30

본부별 소식 & 세믹스능력평가

# 세믹스인들에게 처음<sup>First</sup>은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줍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잊고 있던 '처음'의 의미를 세믹스인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 설문 기간 2024년 7월 4일~13일 · 참여 임직원 119명 · 출처 레몬베이스

## Q1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GTE's Pick!**  
 뭐든 빨리 해보고 싶어 안달하는 편~  
 어떡하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 Q2

2024년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GTE's Pick!**  
 세믹스 상장 기원 1일차입니다. 상장되면 재테크에 도움되겠죠?  
 왜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1~4번 다하고 싶은데!~

## Q3

세믹스 첫 출근 날의 기억은?



**GTE's Pick!**  
 출근 2시간도 안되어 세밤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납니다.  
 DC Test로 인해 첫날부터 야근..?

## Q4

시작과 끝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시작이 잘못됐어도 끝이 좋으면 좋은 기억이 남죠.  
 다음 시작을 위해 마무리를 잘 지어야죠.  
 끝이 흐지부지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  
 처음에는 모두 열심히 하지만 끝까지 그 모습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야 지속적인 매출과 업무 효율을 꾀할 수 있어요.  
 시작은 추상적이지만 끝은 현실입니다.  
 끝나지 않은 과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이 견고해야 끝까지 무리가 없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끝이 없는 이야기는 있지만, 시작이 없는 이야기는 없어요.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콘셉트와 목표를 잘 잡아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죠.  
 좋은 방향이 좋은 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 Q5

세믹스 매거진 <GTE>의 '처음'을 응원해 주세요

Shoun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GTE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서 모두의 꿈을 이룹시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소식이 많은 매거진, 기다리게 되는 매거진을 만들어 주세요.

세믹스의 뚜렷한 목표, GTE를 향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세요.

GOAT, Greatest Of All Test Team이 될 때까지 파이팅!

처음은 누구에게나 힘들죠! 하지만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세믹스'라는 공식이 생기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저를 포함해 온 우주의 작은 별까지도 모두 <GTE>를 응원할 겁니다! 파이팅! ^\_^

세믹스의 부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세요~

창간호가 세믹스인 만이 아닌 모두가 찾는 보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직원은 물론 고객사에 세믹스의 문화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소박할지라도 끝은 창대할 것을 믿습니다!

TEST 계의 위대한 제국이 되어 우리 회사가 좋은 쪽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임직원의 소통의 장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멋진 매체가 되길 응원합니다.

함께 만들어갈 멋진 이야기들이 벌써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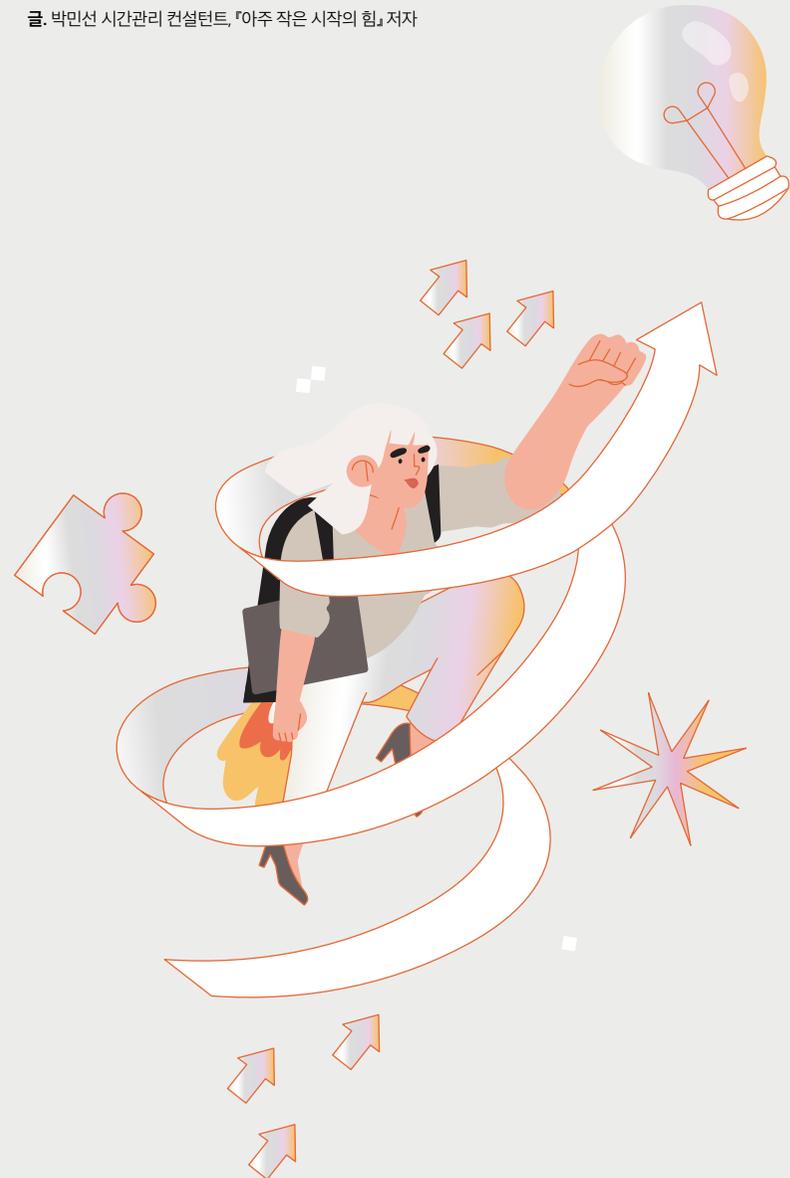
GTE로 향하는 발걸음 응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세믹스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해요.

# 2024년 마지막 날을 후회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면?

한해의 반이 흐른 지금,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뿌듯하게 미소 짓는 분도, 살짝 걱정이 되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결심만 하고 시작은 하지 못할까요?  
이유부터 살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 박민선 시간관리 컨설턴트, 「아주 작은 시작의 힘」 저자



##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을 방해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스코어: 영화음악의 모든 것>에는 영화음악 거장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중 <인터스텔라>, <라이온 킹>, <다크 나이트> 등 수많은 히트작의 음악을 담당했고 얼마 전에는 <듀>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한스 짐머 음악감독의 인터뷰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새로 진행할 작업을 위해 영화감독과 미팅을 한 후 드는 감정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거든요.

“감독이 떠나면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감독에게 전화해서 다른 사람과 일하라고 할까 싶을 때도 있어요.”

영화음악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거장도 힘들어 하는 것을 보니 시작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사실 시작을 미루는 이유로 게으름을 많이 꼽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압박감 다시 말해, ‘잘해야 한다’는 압박관념 때문입니다.

## 꾸준함을 위한 3가지 공식

그렇다고 마냥 시작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잘못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주제 노트’를 작성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목표’에 반복하고 집중한 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땅의 단면을 보면 지층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같은 시간에 같

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쌓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할 텐데요. 꾸준함을 위한 3가지 공식에서 힌트를 얻어 보세요.

## 첫째, 목표부터 잘 설정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남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진짜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진짜 목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동해야 하는데’, ‘승진해야 하는데’처럼 떠오르는 낱것의 고민을 종이에 글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왜 필요한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을 확장해 보세요. 진짜 목표를 찾은 후에는 노트를 한 권 사서 적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주제 노트’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제와 관련해 떠오르는 생각을 적고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도 써봅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5분이라도 행동하기 시작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둘째, 내가 가진 환경에 목표를 맞추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 중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단, 수면을 줄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쓸 데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꽤 많으니까요. 하루에 2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1시간만 목표에 투자해 보세요. 회사나 집이 아닌 카페나 도서관 등 다른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실행 여부를 점검하세요.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찾아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됩니다. ‘할 일’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도 캘린더에 적으면 좋아요. 목표에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죠. 만약 너무 바빠서 실천하기 힘들었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쓰는 시간을 조정하세요. 일주일에 3회에서 2회,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입니다.

## 나는 어떤 유형?

이렇게 해도 실천이 힘들다면,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 보세요. 시작을 미루는 유형으로는 흔히 5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높은 ‘높은 기준형’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

려워하는 ‘타인의식형’이 가장 흔합니다. 이외에도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성장이 미뤄지는 ‘쇠귀에 경 읽기 형’, 자신의 세계가 좁아서 발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흑백이론 형’, 긍정의 가면을 쓰고 현실을 외면하는 ‘나는 괜찮아 형’ 등 성향별로 시작을 미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성향인지 궁금하신가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에 접속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2024년은 절반 가까이 남았으니까요! **GTE**



※ QR코드를 스캔하면 ‘게으른 완벽주의 5가지 유형 테스트’로 연결됩니다.

설립 2년 만에 국내 최초<sup>First</sup>로 반도체 관련 메인 장비를 해외에 수출했고, 20여 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검사장비 분야의 퍼스트 무버<sup>First Mover</sup>가 됐습니다. 그 사이 작은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밀어 붙여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씨믹스인들과 세상에 없던 최초의<sup>First</sup> 제품을 내놓기 위해 힘쓰는 일이 가장 흥미진진<sup>Exciting</sup>하다는 유완식 회장 이야기입니다.

글. 최주연 사진. 황필주(79Studio)



“씨믹스는  
언제나  
Exciting 하게,  
First를  
향해 갑니다”

(주)씨믹스 유완식 회장

2000년도에  
씨믹스를 설립하셨습니다.  
첫발을 내딛는 순간,  
두렵지 않으셨나요?

**A**  
전혀요. 기술력에 대한 확신 덕분이었나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기술력만 갖고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냥 믿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정확히는 하고자 한 일은 끝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도중에 그만둔 일들도 있긴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실패일 텐데, 저에게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재미없어서 끝낸 거죠. 스스로 그렇게 믿어서 그런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아내를 설득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때도 당당히 비전을 말하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파격적인 가격과  
무한 A/S를 조건으로  
거셨다고 알려졌어요.

**A**  
그 부분은 정정하고 싶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작은 회사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씨믹스의 경쟁력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 경쟁력은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될 때 세계 1위라고 칭하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도 갖고 싶은 좋은 장비, 차별화된 장비를 세상에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오페라<sup>OPERA</sup>는  
임동철한 속  
유엔모지를 파란  
잔디로 단장해달라는  
미군의 요청에  
보리싹을 심어  
문제를 해결했던  
정주영 회장의  
일화에 버금갈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했습니다.”

설립 2년 후인 2002년 9월,  
첫 수주에 성공하셨어요.  
씨믹스 전체 역사에서  
어떤 시기였나요?

**A**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 겁니다. 연구개발을 하며 우리 회사 제품을 홍보하러 다녔으니까요. 쉽지는 않았어요. 일본과 미국의 몇몇 업체들이 이미 분야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만 에이전트와 함께 가장 어려운 기업을 목표로 삼았죠.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까다로운 대표만 설득하면 납품할 수 있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웨이퍼 프로버 2대를 납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씨믹스만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장비 역사에도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메인 장비를 해외에 수출한 최초의 사례니까요.





### 썸믹스에서 말하는 차별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A** 그전까지 세상에 없던 것, “오~”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한 장비를 만들고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술을 배울 때는 남을 따라 해야죠. 뛰어난 기술들을 하나하나 모방하며 배우되,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썸믹스는 언제나 세상에 없던 것만 만들었어요. 동시에 디테일을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히기 위해 노력했죠. 그래야 고객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명품, 명작이 됩니다.

“저는 MZ세대가 유별하다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월급 받았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성실하게만 일하는 것보다 동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대신 좋아하는 일에는 확 매달리는 모습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MZ세대에게 흥미와 영감<sup>Inspire</sup>을 불어넣어주면 세상에 없던 생각과 시스템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 썸믹스 장비 중 프리미엄 모델인 오페라 개발 스토리가 특히 궁금합니다.

**A** 썸믹스를 인수·합병하려 했던 회사 덕분이죠(웃음). 인수·합병 제안을 거절했더니 메일이 왔습니다. 앞으로 그룹 프로빙의 시대가 올 텐데, 썸믹스처럼 작은 기업에서는 못 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배가 아프고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걸 만들어서 차별화시키겠다고. 평소 썸믹스를 키우는 게 꿈이라던 연구소장님을 부추겼더니 금방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머리를 맞대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SWTEST에서 제가 발표했어요. 싱글 프로버를 모아두기만 한 기존 제품은 길거리 햄버거에, 프로버 12개를 제대로 쌓은 리얼 그룹 프로버인 오페라는 프리미엄 스테이크에 비유했죠. 우리를 인수·합병하려고 했던 회사 임직원이 컨퍼런스 좌장이었는데, 한 대 만들어 와달라고 하더군요. 임팩트가 컸겠죠. 이후 그 회사는 그룹 프로버 전량을 썸믹스의 오페라로 바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연구소장님의 역할이 컸기에 저는 언제나 연구소장님이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 Fun, Pride, Profit이라는 핵심 가치 선정 배경과 각각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프랑스 사람이 보낸 메일을 읽다가 “오!” 하며 우리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먼저 Fun은 일하는 이유예요. 재미있어서 일을 해야지, 남이 시켜서 하거나 월급을 받은 대가로만 하면 힘들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Pride, 자부심과 보람이 생기죠.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일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껴도 Profit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썸믹스가 Fun하게 Pride를 느끼며 일하면서 개인과 비즈니스의 Profit을 만드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 기부와 봉사 활동도 많이 하는 편이죠?

**A** 저는 거창한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할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제 관심 범위는 딱, 우리 썸믹스 그룹입니다.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썸믹스인들과 함께 봉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회사가 기부를 하면 임직원들이 뿌듯할 거고요. 최근 전사 광 여행에서도 직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재미있었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평소 임직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회사를 다 떠나버리면 제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 GTE The Greatest TSP Empire라는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 썸믹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목표 지점이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면서 기업에는 최종 목표 지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존재하려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니까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또 다른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죠. The Greatest TSP Empire라는 비전을 절반 정도 달성하고 나면, 빨리 다른 성장 엔진과 비전을 찾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GTE**

## Shoun's First & Exciting

기존 체제 자체를 뒤집어 버리거나 전체의 도약을 이루는 인물형. “ENTP 중에서도 슈퍼 P 에요”라는 유완식 회장의 자백(?)을 듣고 찾아본 MBTI 상의 특성입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려는 찰나 “그래도 머릿속은 잘 정리되어 있어요”라는 그의 말이 떠올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어졌습니다.

### First

아침에 눈을 뜬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출퇴** 1년쯤 됐습니다. 썸믹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젊어져야 할 것 같아서요. 젊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 피부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 Exiting

가장 익사이팅한 순간은

**매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큰 고객사와 계약을 맺을 때 등 수없이 많아요. YMTC에 오페라 60대를 팔았을 때도 생각나네요. 이 모든 익사이팅한 순간을 함께 만드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 Like

제일 재미있는 일은

**생각하기**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할 때도 생각하느라 지겨운 줄 몰라요. 틈틈이 생각을 끄적거려둔 연구 노트도 많아요. 모든 생각이 구체화되는 건 아니지만, 튀어오르는 것들 중 몇몇은 놀라운 일들을 만듭니다.

### Value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돈과 사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쓰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의 규모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만큼 커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다져나가야겠죠.

# 우리 각자의 First를 찾아서

첫째, 우선, 맨 먼저... 영어 First는 시작과 최고를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세믹스인들을 설레게 하는 처음과 최고를 이루는 것들을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 편집실 사진. 황필주(79Studio)



영업본부 영업1실 오진수 Jinsu

## 나에게 First<sup>처음</sup>은 적응이다

새롭게 시작할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르고 빠르게 적응해야 앞으로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 ‘처음’으로 감동을 준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전개 방식이 독특해서 더 쉽게 읽히는 책이에요. 작가가 들려주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삶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전개되어 수많은 책 중에서도 가장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추천 코멘트** “물입감이 좋은 소설책을 찾고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양한 시공간을 오가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사이, 다른 에피소드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되는데요. 덕분에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 ‘처음’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음식은 김치찌침



김치찌침만 보면 군 입대 후 첫 휴가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께서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보시기에 김치찌침이라고 대답했는데... 첫 휴가부터 마지막 휴가까지 질리도록 김치찌침을 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지금도 김치찌침만 보면 군생활과 첫 휴가가 생각납니다.

**추천 코멘트** “삼겹살이 들어간 김치찌침이 제일 맛있지 않나요? 두툽한 통 삼겹살과 잘 익은 김치를 넣어서 김치찌침을 만들면 맛없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 ‘처음’ 가본 해외 여행지는 중국 가족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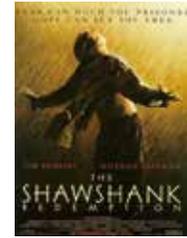


초등학생 때 가족들과 처음으로 간 해외여행지였어요. 어린 마음에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이동하는 것도, 많이 걷는 것도 지루했죠. 하지만 중국 특유의 거대한 건물들과 휘황찬란한 야경,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음식들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행을 가서 시야를 넓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추천 코멘트** “중국은 정말 모든 것이 크고 넓고 많습니다. 바로 옆동네로 간다고 해 놓고 버스로 3시간을 이동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는 것보단 시간 배분을 여유롭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구경 거리도 많고 이동에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요.”

### 쇼생크탈출

#### ‘최고’의 영화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주인공 앤디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끈기와 지혜를 발휘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함께하면서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추천 코멘트** “어려운 시기일수록 견디는 힘이 필요할 텐데요. 살아가면서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 끈기를 갖고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 순간에 앤디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영감과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바디프로필 촬영

#### ‘최고’의 성취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우연히 바디 프로필을 알게 되었어요. 바디 프로필을 찍을 생각에 혹독한 다이어트와 운동 과정을 이겨냈고, 끝내 마음에 드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운동이 재미있어졌고 체력도 향상되었어요. 예전에는 회사 단체 등반 시 겨우겨우 기어서 오르곤 했는데, 운동을 시작한 후에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거뜬히 설악산에 올라, 뿌듯하고 여유롭게 멋진 풍경을 즐겼습니다.

**추천 코멘트** “과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멘탈을 단단히 잡는 게 중요했어요. 다이어트에는 식단이 제일 중요한데, 평일에는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하되 주말에는 먹고 싶었던 것을 건강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는 치팅데이를 가졌어요. 보람도 있고 보상도 되니 다음 한 주 동안 운동과 식단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 가족들

#### ‘최고’ 소중한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잘 키워 주신 부모님. 30년을 치고받고 싸우면서 동거동락했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나의 남매들. 남은 인생을 같이 걸어가기로 약속한 든든한 남편,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운 20개월차 아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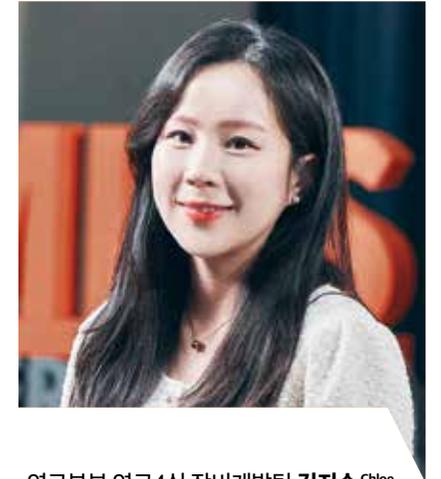
**추천 코멘트**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함께할 때는 서로에게 집중하며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전달해요. 긍정적인 대화를 자주 하고 현재 우리가 건강하게 평범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GTE

####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해 주세요

테마 플레이리스트에서는 테마와 관련된 음악, 책, 프로그램 등 세믹스인들의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취향을 나타낼 수 있는 테마 플레이리스트에 참여해 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다음 호 주제: Pride & Profit(자부심과 결실) · 신청하실 곳: hjkook@semics.com 혹은 <GTE> 매거진 카카오톡 채널 · 마감: 9월 27일 금요일까지



연구본부 연구4실 장비개발팀 김지수 Chloe

## 내가 First<sup>최고</sup>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목표도 동기도 잊기 쉽잖아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좋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점들이 모여 그림을 완성하듯 습관이 삶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줄 테니까요.

# GTE 건설의 부스터 Real Group Prober OPERA

글. 최주연 사진. 황필주(79Studio)

‘세믹스의 힘만으로는 다가올 그룹 프로버 시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OPERA 탄생을 촉발시킨 한 문장입니다.\* 움츠러들게 할 법한 평가였지만, 세믹스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2017년 SWTEST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발표했고, 연구·개발(R&D) 국책 사업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2018년부터 구체화에 돌입해 꼬박 5년을 매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믹스는 20건 이상의 지적재산권도 취득했습니다(2021년 12월 기준). 마침내 첫 선을 보인 OPERA는 반도체 시장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 볼까요?

- ① 웨이퍼 프로버의 핵심 성능인 UPH(Unit per Hour) 15% 향상
- ② 3-Pod Tilting 도입으로 혁신적인 프로빙 솔루션 제공
- ③ 층 및 셀 별 온도를 Hot, Ambient, Cold로 조절,  
다양한 타입의 디바이스 동시 테스트 가능

이런 특징점에 힘입어 2023년 OPERA의 매출은 2022년 대비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OPERA는 또한 글로벌 웨이퍼 장비 시장에 ‘고성능·고정밀화’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후로도 고도화에 힘쓴 덕에 2024년 7월 현재 OPERA는 단일 장비 기준 최단 기간 내 최고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OPERA 매출이 증가하는 해에 최고 매출을 경신해온 만큼, 올해 세믹스는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세믹스의 혁신 기술과 도전의 집약체 OPERA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며, 위대한 TSP 제국 건설이 눈 앞에 펼쳐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GTE**

\* 8p 테마 Talk 참고



**50**명  
참여한 세믹스 연구원의 숫자

**620%**↑  
싱글 프로버 대비 공간 효율성

**83,200**장  
1년에 테스트할 수 있는 웨이퍼의 수(1대 당)

**7**배 ↑  
싱글 프로버 대비 생산성

**20**건 ↑  
지적 재산권 취득 수(2021년 12월 기준)



## First & Exciting Workshop 2024 세믹스 괌 워크샵

지난 4월 세믹스가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3박 4일간 펼쳐진 전사 괌(Gaum) 워크샵! 세믹스인은 물론 가족까지 동반한 워크샵이라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인사총무팀에서 준비한 '우리끼리 같이' 프로그램 수상작을 중심으로 특별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꺼내 봅니다.

정리. 편집실



### 하와이 징크스를 넘어 괌으로 Go Go~

세믹스가 전사 해외 워크샵을 구상한 것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설립 초반, 대만 고객사에 누적 100대를 판매한 것이 계기였죠. 당시 세믹스에서는 대만 에이전트와 그 가족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면서 대만에서 1회 판매 100대를 달성하면 모두를 하와이로 초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빠른 시일 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고 그 뒤로도 유완식 회장과 김지석 사장은 여러 차례 “목표를 달성하면 다 같이 하와이로 갑시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하와이 워크샵과 관련한 공약 이행은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유완식 회장이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갑시다”라고 했지만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은 다시 좌절됐습니다. 이쯤 되면 ‘하와이 징크스’라고 부를 만하죠?

그래서 발상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OPERA를 만들 때 그랬던 것처럼요. 세믹스 최초 전사 해외 워크샵은 이렇게, 하와이에서 괌으로 장소를 바꾸며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 포토 북으로 간직하는 추억, '우리끼리 같이'

우여곡절 끝에 떠나게 된 워크샵인 만큼 추억을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세줄일기' 앱을 통해 사진을 모은 후 포토 북 만들기! 세믹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푸짐한 상품도 걸었는데요. 특히 사전 점수에 더해 '좋아요'와 댓글 수, 내용 점수는 물론 임직원 얼굴 수까지 5가지 항목을 합산해 시상자를 선정하고 소속 부서에 상금을 전달한다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그 결과 워크샵 기간 동안 215개의 사진과 사연이 모였고 총 14명(부서)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 시상 내역

개인 다작상	곽서희 기획1실		
팀 다작상	기획1실		
베스트 팀워크상	생산본부		
대상	오한빈 기획2실		
최우수상	박종문 생산본부	박재성 연구2실	
우수상	신호성 품질1실	하동준 연구6실	김지수 연구4실
장려상	박경자 기획2실	강정은 연구4실	김창섭 영업1실
	김학진 품질본부	양아연 기획1실	

베스트 팀워크상

생산본부



썸믹스인들이 하나되는 시간.  
생산본부 화이팅

불안전체 파트생산팀  
경혁아, 기완아  
다음엔 같이오자!!  
2024년 4월 27일.  
by 생산 신용번



밤하늘의 반짝이는  
저 별처럼 빛나는  
우리 썸믹스 1조 매출 가져!!  
2024년 4월 26일.  
by 생산 김민수



밤하늘  
해질녘 노을을 담아  
2024년 4월 27일.  
by 생산 황금동

한 여름 밤의 꿈  
하와이에서도 꾸길  
2024년 4월 28일. by 생산 안재호



#사진맛집 #사랑의 절벽  
너무덥다..

2024년 4월 27일. by 생산 정태진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서  
행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7일. by 생산 정원철



#썸믹스 1조 기원  
#다음은 하와이 #기도 완료  
2024년 4월 28일. by 생산 정태휘



밤에 숨겨진 썸믹스 보물을 찾아...  
2024년 4월 28일. by 생산 이수범

팀 다작상

기획실



오전투어 멤버  
해가 너무 뜨겁지만 단체샷~  
오후는 자유롭게  
2024년 4월 26일. by 기획1실 정준모



여긴어디? 나는 누구??  
불과 몇시간전에  
밤 건비치 앞에 있었는데  
현실은 경기광주터미널~ㅋ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28일. by 기획1실 김아름



하루하루 썸믹스와 함께하는 밤  
와!! 이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  
이제 하와이로 가즈알로하  
2024년 4월 26일. by 기획1실 김종영



모든 게 새롭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밤 밤 좋았다^^  
아디오스!  
2024년 4월 29일. by 기획1실 민소리

썸믹스 임직원 여러분~  
드디어 밤 으로 떠나네요!  
믹(미)친듯이 놀고 먹고 즐길  
준비 되셨나요? 됐다면  
스(소)오리 질러!!!

2024년 4월 24일. by 기획1실 주소망



대상

기획실 오한빈



Start with why / 5 times for 5 years  
Simple perfection.....  
팀 썸믹스 미국(바다) 접수  
기획1실 오한빈

개인 다작상 ————— 기획1실 박서희



Eric's lesson  
is goooooood  
꿈에서도 버디사냥  
2마리 성공  
스크린은 Jack,  
필드는 Eric  
2024년 4월 27일.  
by 기획1실 JK



꿈 골프 한게임 후  
점심  
너무너무 맛있네요  
2024년 4월 26일.  
by 기획1실 JK



파란하늘, 푸른잔디  
이팔청춘  
2024년 4월 26일.  
by 기획1실 JK

최우수상 ————— 생산본부 박종문 & 연구2실 박재성



세믹스의 화려한 워크숍  
한순간의 즐거움  
영원한 기억  
2024년 4월 28일.  
by 생산 박종문



거북이 분명히  
느리다 했는데  
2024년 5월 2일. 꿈에서.  
by 연구2 박재성



세믹스 목욕탕  
남탕  
2024년 4월 28일. by 생산 박종문

우수상 ————— 신호성 & 생산본부 하동준 & 연구4실 김지수



세믹스 꿈 블루홀 접수  
2024년 4월 28일. by 품질1실 신호성



남자 4명 남부투어  
남자 담게 점프  
2024년 4월 27일. 꿈에서.  
by 연구6 하동준



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행복하게~웃어웃어~  
우리 행복하잖나?  
2024년 4월 27일. Agat harbor에서.  
by 연구4 김지수

장려상 ————— 기획2실 박경자 & 연구4실 강정은 & 영업1실 김창섭 & 품질본부 김학진 & 기획1실 양아연



세믹스인이어서 오게 된 꿈~  
27주년 결혼 기념여행인셈 치고^^  
곰탱이씨는 올해도 이렇게 물어 가시냉 ㅋ  
2024년 4월 26일. by 기획2실 박경자



???: 뒤에 봐  
응 뭐지?  
아 사진 찍는데 나오시라구요~~~  
2024년 4월 27일. by 연구4 강정은



금쪽이들과 함께.  
체벌은 필요하다.  
2024년 4월 27일. by 영업1 김창섭



여기도 맥스  
저기도 맥스  
꿈워크숍 이거이거이거  
어쩔 이유가 있을 수도...  
2024년 4월 26일.  
by 기획2실 박경자



우리는 다세대 가족.  
다함께, Hafa Adai! 품질 본부  
2024년 4월 28일. by 품질본부 김학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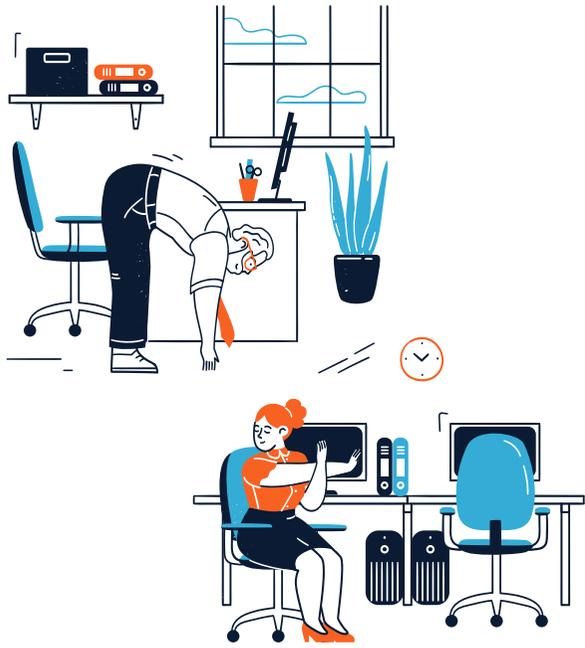


나도..  
우리 엄마가 세믹스 다니셨음  
좋겠다..아빠도.. ㅋ ㅋ  
2024년 4월 25일. by 기획1 양아연



썬셋과 맥주!  
인생샷 한번 찍어봤어!  
세믹스 가즈아!  
2024년 4월 25일. by 품질본부 김학진





단순하게, 즐겁게, 꾸준히!  
**바쁜 당신을 위한  
 운동 처방전**

‘운동’은 대부분의 사람이 매년 목표로 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퇴근하고 나면 체력이 바닥나서, 운동으로 인한 피로가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등 운동을 할 수 없었던 핑계도 넘쳐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운동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명 ‘트셈’이라 불리는 생활체육지도사의 조언과 함께 운동과 친해질 수 있는 비법부터 공개할게요!

글. 강은주 자유기고가 도움말, 박민영 퍼스널트레이너(생활체육지도사)



**STEP 1. 남이 아닌 자신만의 이유 찾기**

몇 년 사이, PT(Personal Training)샵이 많이 생겼습니다.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골프나 수영, 러닝, 웨이트 같은 전통 종목은 물론 크로스핏이나 발레핏, 필라테스 같은 새로운 분야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동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새해 초에는 운동 시설마다 사람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열기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웨이트 지도경력 10년 차인 박민영 트레이너는 “확고한 이유가 없는 회원이 많다”라고 답합니다. ‘남들이 하니깐’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등 분위기에 편승해서 운동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트레이너는 PT 상담 시 목표에 대해 상세하게 묻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인 경우에 필요한 운동과 근력 강화가 목표인 경우 해야 할 운동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운동을 시작하려는 입장에서는 상담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죠. 이런 부담을 줄이려면, 운동할 결심을 하는 동시에 이유와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당한 종목을 몇 개 추천할 수 있고 한 가지로 정한 후에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STEP 2. 비용은 내 의지에 대한 대가!**

이유와 종목을 정한 후에도 유혹(?)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운동 관련 콘텐츠를 보다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러닝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세와 러닝화 고르는 법 등 소소한 팁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의 경우라면 운동법을 계획하고 자세나 호흡법을 안내하는 앱은 물론,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릴스도 수만 가지에 달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들어서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첫째 기본기를 잘 갖추어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둘째 비용을 지불하면 부족한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운동’이란 고가의 PT나 1:1 필라테스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한도 내에서 약간의 강제력을 만들어 두면 운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STEP 3. 일단은 기본기부터**

그래도 망설여지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간단한 운동의 기본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틈틈이 실천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각자의 이유와 하고 싶은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GTE**

**일단 숨쉬기**

**가슴 호흡**

**How** 갈비뼈가 사방으로 잘 움직이는 느낌이 들 때까지 10회 이상

**When**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 퇴근길 이동 중

- ① 의자에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서 갈비뼈에 손을 올려 보세요.
- ②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며 가볍게 가슴이 들썩거리는지 확인하세요.
- ③ 가슴우리가 전후좌우로 모두 확장되는지 확인하면서, 시작할 때보다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호흡을 진행하세요.

※ 목과 어깨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호흡을 절반만 한다고 생각한 후 점차 호흡량을 늘려 보세요.



**코어 호흡**

**How** 갈비뼈와 복부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 때까지 10회 이상

**When**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하다 운동하고 싶을 때 편히 앉아서

- ① 편안한 상태로 가슴과 배에 손을 댄 후, 코로 숨을 쉬며 가슴을 크게 확장하고 배를 양옆으로 늘리는 상상을 하며 평평하게 만드세요.
- ②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가 줄어들고 배도 천천히 버티며 줄어들도록 조절합니다.
- ③ 내쉬는 호흡에 배꼽 주변이 배꼽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면 성공!
- ④ 갈비뼈와 복부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일 때까지 반복해서 진행하세요.

**일단 바로앉기**



**척추 커브를 지키며 앉기**

**How** 머리를 멀리 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비뼈와 복부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날 때까지 10회 이상

**When** 일하다 찌뿌둥할 때, 이동 중 앉아 있을 때

- ① 척추를 늘린다고 생각하며 정수리를 하늘과 가깝게 높이세요.
- ② 엉덩이뼈를 바닥에 대고 골반을 세워서 허리 쪽 척추가 살짝 앞으로 기운 커브를 유지하세요.
- ③ 가슴을 크게 부풀리는 가슴 호흡을 합니다.

**힙힌지 패턴 익히기**

**How** 머리를 멀리 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비뼈와 복부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날 때까지 10회 이상

**When** 일하다 찌뿌둥할 때, 운동 세트 사이 쉬는 시간에

- ① 힙힌지는 골반과 다리뼈를 잇는 고관절(hip)이 기준이 되어 현관문에 달린 경첩(hinge)처럼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 ② 머리를 멀리 두고 사타구니를 접어 배가 허벅지에 닿게 하세요.
- ③ 이때 목-등-허리를 연결하는 척추가 본래 형태를 유지하게 계속 머리와 엉덩이를 멀리 둡니다.
- ④ 코어 호흡을 하며 복부에 적절한 긴장감을 만듭니다.
- ⑤ 들이 쉬는 숨에 상체를 기울이고 내쉬는 숨에 갈비뼈와 복부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상체를 세우세요.

※ 허리나 등이 불편하다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50%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 갑니다. 작게 호흡하는데도 목과 어깨, 등이 불편하다면 ‘어깨 돌리기’ 동작을 진행한 후 다시 호흡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 新竹市

**新竹市**  
면적: 104.1526 km<sup>2</sup> 시차: -1시간 인구: 433,091명 기후: 아열대 해양성 기후  
지리적 특징: 바다에서 부는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되어 있음



대만 북서부에 위치한 신주지역은  
신주시와 신주현으로 나뉩니다.  
그중 대만의 IT기업이 집중된 신주시는  
'대만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죠.  
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의 65%,  
패키징-테스트 분야 점유율 53%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이곳에 (주)세믹스 신주 오피스가 있습니다.  
Greatest TSP Empire를 향한 전진기지,  
신주를 함께 여행해볼까요?

글. 이지선 여행작가



新竹 都城隍廟

Hsinchu City God Temple

## 신주 도성황묘

### 대만인의 기복신앙과 음식 문화를 한번에!

대만 정부 선정 '대만 종교 100경' 중 한 곳으로 인간 세상의 선악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는 도성황(都城隍)을 모신 사원입니다.

1891년 청나라 조정에서 신주 성황을 도성황으로 격상시킨 이래, 대만 최대의 성황묘로 이름을 알려왔어요. 특히 매년 음력 7월 1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칼을 어깨위에 쓴 후 칼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통해 죄를 사면받고 과거의 업을 행운으로 바꾸는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200여 년이 흐른 지금, 신주 도성황묘는 도성황묘 상가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도성황묘 상가에서는 오리고리 요리와 돼지고기완자인 궁완(貢丸), 타로볼 위니츄(芋泥球), 추억의 간식 수이룬빙(水潤餅)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 때문에 도성황묘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대만인들의 기복신앙과 음식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니 꼭 들러 보세요!

대만지사 신주 오피스 부근 Jhubei Station에서 Local Train으로 약 25분 거리



The Greatest TSP Empire

南寮漁港

Nanliao Fishing Harbor

## 난랴오어항



### 신선한 해물부터 신나는 연날리기까지!

난랴오어항은 청나라 때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한 항구입니다. 1980년 현재 형태를 갖추며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정박항이 되었죠. 바닷바람이 유난히 강해 연을 날리기 좋은 난랴오어항에는 국제연공원(國際風箏場)도 있습니다. 매년 2월 국제연날리기 대회가 열릴 때면 기상천외한 연들이 바다 위를 수놓다 바람에 곤두박질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어선이 보이는 항구 쪽에는 해산물 시장과 식당가가 들어서 있는데요. 싱싱한 활어와 횡감식 식욕을 자극하는 탓에 공원 산책을 나갔다가 식당부터 들르는 현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난랴오어항은 대만의 젊은 세대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시키는 식당부터 수제 피자 가게를 비롯한 식당들 덕분이에요.

해안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구까지 가는 코스도 추천할 만합니다. 다만 바람이 너무 강해 사구에 닿기 전에 모래폭풍에 휩쓸릴 수 있으니 난랴오어항 방문 시에는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지사 신주 오피스 부근 Jhubei Station에서 Local Train으로 약 90분 거리

## 신주과학단지



### 대만 반도체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16개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 등 총 384개 업체들이 모인 신주 과학단지는 1980년 12월 15일, 대만 정부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신주과학단지에는 컴퓨터, 통신, 광전자공학, 정밀기계,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총 6개의 주요 산업 관련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대만의 자랑인 TSMC 본사 주변으로 세계 3위 파운드리 기업인 UMC를 비롯해 VIS(세계 8~9위), GUC(대만 1위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알파 네트워크(대만의 대형 디자인 제조서비스 공급업체) 등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죠. 제조부터 설계·전공정·후공정까지 완벽한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반도체 역사 기록박물관도 있습니다. 이곳의 자랑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자료인데요.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들이 성과를 내면서 대만 반도체의 활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팹리스 기업들처럼 (주)세믹스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선두 주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만지사 신주 오피스 부근 Jhubei Station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

## 베이푸

### 대만 차의 황금시대를 연 '동방미인'의 고향

대만여행 필수 기념품으로 꼽히는 우롱차, 동방미인(東方美人, Oriental Beauty)의 고향도 신주현 베이푸향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베이푸는 청나라 때부터 계단식 논밭과 차농원, 과수원으로 개발됐습니다.

9월부터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해 평청(風城, 바람의 도시)라고도 불리죠. 이런 자연환경 덕에 베이푸에서는 쌀국수, 곶감, 우롱차 등을 특산물로 발전시켜왔는데요. 그중 동방미인은 대만 차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차의 호랑이(茶虎)'라 불리는 장이신의 활약이 컸습니다. 사실 1960년대 초만해도 대만은 주로 홍차를 만들어 수출했지만, 장이신은 "대만 고유의 우롱차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선언했고, 1960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음식박람회에 동방미인을 출품해 2등상을 수상합니다.

한편 베이푸는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하카[客家]인 집성촌입니다. 하카인의 전통차 레이차(擂茶, 견과류를 갈아 만든 곡물차)를 마실 수 있는 찻집과 붉은 벽돌 곶택, 거리마다 놓인 우물 등 고즈넉한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베이푸를 방문하세요.

대만지사 신주 오피스 부근 Jhubei Station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 거리



## SEMICS의 마음으로 위대한 일을, SEMICS Taiwan Team!

세믹스에게 대만은 고향과도 같습니다. 20여년 전 1호 제품을 납품·설치하며 세믹스의 존재를 널리 알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 '고향에서의 성공'을 위해 올해 대만지사 세믹스인들은 더욱 가열차게 일하는 중인데요. 본사와 대만지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온 영업마케팅팀 윤지영(Hailey Yoon)님에게 대만지사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Team I & II members of OPUS3



Team III members of OPERA MD

납품하고 싶은 고객사가 많아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신 기술 트렌드 파악이나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니, 대만 고객사는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 대만 고객사들은 세믹스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오픈 마인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보수적이고 딱딱한 일본문화에 익숙한 대만 사람들에게는 세믹스 문화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믹스와 일하면 유연함과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믹스의 핵심 가치인 Fun, Pride, Profit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Q 세믹스의 해외지사 중 대만지사는 왜 중요한가요?

A 20여년 전 1호 장비가 납품·설치된 곳이니, 세믹스에게 대만은 고향과 같아요. 그런데 치열한 외부 경쟁 등 여러 가지 상황 탓에 대만시장에서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었어요. 올해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를 GET BACK TAIWAN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죠. 다른 해외지사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믹스의 고향인 대만에서 목표를 이루면 더 큰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만지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GTE

### Q 세믹스 대만지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A 신주 오피스에 10명, 타이중 오피스에 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업과 서비스, 트레이닝 모두를 담당하죠. 눈에 띄는 점은 대만지사가 현지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에요. 세믹스는 현지화를 지향하기에 지사에 본사 인원을 파견하지 않거든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 지사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Q 요즘 대만지사가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A 타이중 오피스에서는 시시때때로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올해 오페라를 30대 이상 납품하며 그룹 프로버 대만 지역 최고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신주 오피스는 최근 더 넓은 사무실로 이사를 했어요. 신입사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신주 오피스에 가면 풋풋한 기운과 기분 좋은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만지사 동료들에게 앞으로도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 Q 대만 고객사는 세믹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A 세믹스 1호 장비를 비롯해 오래되거나 이미 단종된 제품들이 남아 있기에, 대만 고객사는 세믹스 역사의 증인입니다. 한편, 반도체 시장 신기술을 선도 중인 대만에는 우리 장비를 꼭

### SEMICS Taiwan Team

- 1 신주 오피스**  
위치: 5F-3, No.18, Tai yuan St.  
Zhu Bei City, Hsinchu County 302, Taiwan
- 2 타이중 오피스**  
위치: No. 2, Ln. 929, Sec. 3, Sanfeng Rd., Houli Dist., Taichung City, Taiwan (R.O.C.)

# DX와 함께하는 Moon 팀장의 하루

세믹스가 그리는 혁신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의 길



\* 해당 이미지는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Moon 팀장은 세믹스의 통합생산팀을 이끌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장비제조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느라,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DX)이 도입된 후, Moon 팀장의 일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DX가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Moon 팀장의 일과를 따라가며 살펴 보았습니다.**

글·이미지 제공. 기획본부 기획2실 전략팀 박경자 Teresa 이사



아침 일찍 출근하는 Moon 팀장은 가장 먼저 전날의 데모런(Demo Run) 데이터부터 확인합니다. 이전에는 각기 다른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일일이 모아 분석해야 했지만,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이후, 대시보드를 통해 전날 제조한 장비의 품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된 대시보드에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on 팀장은 인덱스 타임(Index time), Chuck loading accuracy & precision, preAlign 시도 횟수, Probing accuracy & precision 등이 주어진 사양을 만족하는지를 점수화한 성적서를 확인하고, 일정 점수를 만족하지 못한 장비를 대상으로 원인 파악에 나섭니다.

**출근 및 데이터 분석**  
9:00 am

AM 09:00 | 10:00 | 11:00 | 12:00

**10:00 am**  
제조장비 점검

Moon 팀장은 매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장비를 다시 점검합니다. 이번에는 기준보다 느린 인덱스 타임 성능을 보이는 장비에 IoT 진동 센서를 부착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진동 데이터를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분석합니다. AI 시스템은 진동 데이터의 파형이 정상 장비의 파형과 다른 점을 감지하고, 알람을 띄웁니다. 마침 제조 라인에 지원나와 있는 제어팀 연구원이 스테이지 모션 상태 점검에 나섭니다. 제어팀 연구원은 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시 수정하여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복구합니다.



Moon 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주간 품질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DX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비 품질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얼라인 시도 횟수가 증가한 장비를 분석한 결과 W축의 텐션 불균형이 문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텐션 조정을 통해 기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품질 회의**  
1:00 pm

PM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3:00 pm**  
고객사 대응

한 고객사로부터 최근 납품된 제품 중 일부에 결함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Moon 팀장은 DX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생산 이력을 추적합니다. 모든 생산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신속히 찾아내고 이를 개선한 후 고객사에 다시 보고합니다. 고객사는 Moon 팀장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원인 분석에 만족하며 신뢰를 더욱 높입니다.

Moon 팀장은 출하를 앞둔 장비의 최종 검사를 위해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합니다. AR(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글라스는 실시간으로 장비의 상태를 스캔하고 필요한 정보를 Moon 팀장의 시야에 투영합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Moon 팀장은 먼저 장비의 외관을 확인합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장비의 각 부분을 스캔하여 미세한 흠집이나 이상을 감지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작업이 이제는 훨씬 간편하고 정확해졌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제조 공정 중 수집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연동합니다. Moon 팀장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장비의 성능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모든 지표가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출하 승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장비 출하**  
5:00 pm

**6:00 pm**  
퇴근

하루를 무사히 끝내고 퇴근하는 시간! 오늘 밤에는 chuck의 온도를 30도에서 120도까지 변화시키며 chuck 온도의 균일도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모두가 퇴근해서 재충전하는 동안 자동화 시스템이 밤새 온도 측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Moon 팀장은 DX 덕분에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 실시간 모니터링, 예지 정비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그의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Moon 팀장은 DX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하며,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GTE**

**결론**

Moon 팀장의 하루는 DX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신속한 문제 해결, 고객 만족도 증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반도체 장비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이렇듯 DX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반도체 장비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우리 회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본 시나리오는 세믹스에서 실제 개발 중인 실시간 장비 모니터 링시스템(STORMS)의 실제 활용 사례와 DX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AI 예지 보전 시스템의 기대 효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기술 발전의 모습까지 모두 동원하여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획본부

### 탄소 Zero, RE100 실천을 위한 걸음, 5만 평 규모의 임야 매입



세믹스는 비즈니스 확장과 ESG 경영 고도화로, 재무적·비재무적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6대 과제를 설정하고 각 영역 모두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GTE 사업 확장을 위한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홍천에 5만 평 규모의 임야를 구매하며 ESG 활동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탄소ZERO 및 RE100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기획본부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세믹스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비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업본부

### 매출 3천 억 달성을 위해 Go, Go!



2024년 영업본부의 목표는 매출 3천 억 달성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Taiwan get back입니다. 둘째, 인텔과 마이크론, AMD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접점을 확대하는 것 셋째, SiC를 비롯한 새로운 영역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영업본부 역시 글로벌 No.1 영업본부로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품질본부

### 화담<sup>화담</sup>으로 시작해 화합<sup>화합</sup>까지!

푸르른 5월, 품질본부는 화담숲을 찾았습니다. “우리 화담할래요?”라는 제안에 “다운데 화담숲 트레킹이요?”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트레킹 중 만난 다람쥐 한 마리를 빙 둘러싸며 품질본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였습니다. 나무그늘과 짙은 녹음은 정상으로 향하는 품질본부 구성원들의 걸잡이가 되어주었죠. 그 기운을 받으며 서로가 서로의 나무그늘이 되어주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숲을 걸었던 그날처럼, 품질본부는 언제나 화합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 연구본부

### OSTINATO WLBI 개발 및 첫 출고



2022년 개발에 돌입한 OSTINATO WLBI가 드디어 첫 선을 보였습니다. OSTINATO WLBI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SiC Power Device WLBI 장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연구본부는 특히 경쟁사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장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Tester, Handling System, Probe Card 등 GTE Total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2년간 매진한 것입니다. 드디어 7월 25일, 조출한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가슴 벅찬 첫 출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OSTINATO WLBI가 세믹스의 3천 억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생산본부

### 마를 사이 없는 열정의 땀방울!

생산본부는 오늘도 최고 매출을 향한 걸음을 옮깁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폭우가 쏟아져도 생산본부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매일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며 열정과 땀방울을 쏟아 붓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GTE**



## 세믹스 능력 평가

<GTE> 매거진 창간호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아래 문제를 풀어 보세요! 정답을 맞추신 다섯 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hjkook@semics.com 혹은 <GTE> 매거진 카카오톡 채널
- 마감: 9월 27일 금요일

① 프리미엄 스테이크에 비유되는 리얼 그룹 프로버 OPERA의 아버지는?(주관식)

② 2024 세믹스 광 워크샵 '우리끼리 같이' 프로그램에서 베스트 팀워크 상을 받은 본부는?(주관식)

③ 대만지사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대만 반도체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은?

○○과학단지

④ 세믹스가 그리는 혁신적인 반도체 제조의 길을 열어 줄 이 시스템은?

○○시스템

⑤ GTE 건설 완성의 꿈을 담아 창간호 세믹스 브랜드 매거진의 이름은?

## Semics Brand Magazine <GTE>

vol.1

- 발행인 김지석
- 편집인 박서희
- 발행처 (주)세믹스 기획본부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2-37
- 홈페이지 http://www.semics.com
- 기획·디자인 콘텐츠오(02-921-0301)
- 사진 황필주(795Studio, 0507-1343-9790)
- 인쇄 한솔인쇄(02-2269-0624)



\* QR코드를 클릭하시면 세믹스인들의 소통 공간, 카카오톡채널로 연결됩니다!